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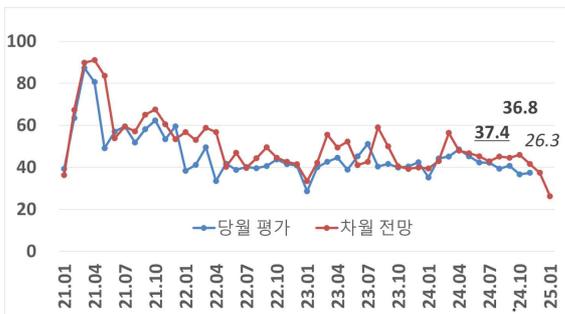
I. 2024년 12월 건설경기평가 및 2025년 1월 전망

■ 12월의 경기평가는 전월 수준, 차월은 악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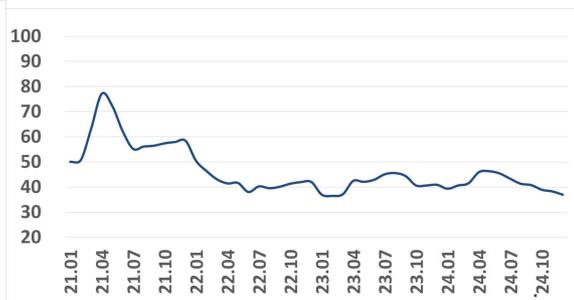
- 12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6.8로 전월(37.4)의 수준이었으나(-0.6p), 차월(26.3)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10.5p).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동절기 공사물량의 감소, 생산체계개편으로 전문 건설업의 전문화 약화 및 전문공종의 추가등록, 인력수급난과 높은 인건비, 건설중기연합회의 가격담합 우려 등이 중점적으로 지적됨.
- 수도권은 37.5(39.5→37.5)로 전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2.0p), 지방도 36.5(36.7→36.5)로 전월의 수준이 지속됨(-0.2p).

〈표-1〉 2024년 12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5년 1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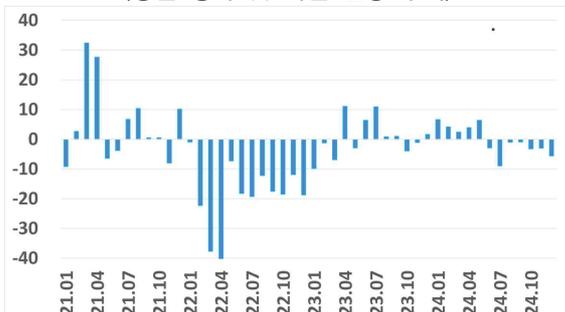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4년 12월 평가	36.8	42.4	37.5	36.5	32.4	50.0
2025년 1월 전망	26.3	39.5	35.7	21.7	35.1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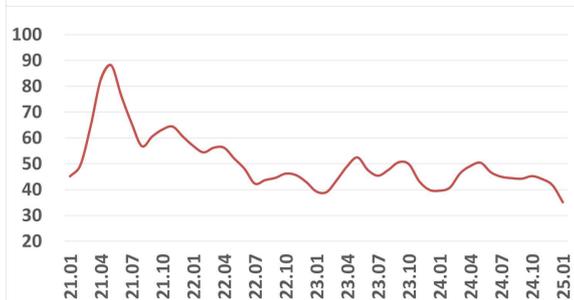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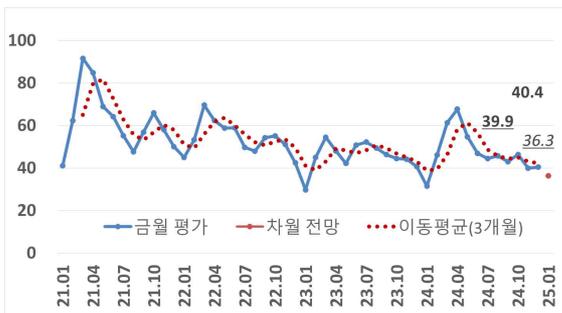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전월 수준, 하도급은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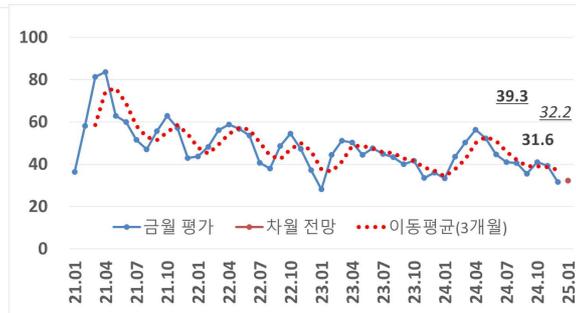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40.4(39.9→40.4)로 전월 수준을 나타낸 반면(+0.5p), 하도급수주는 31.6(39.3→31.6)으로 전월보다 크게 하락함(-7.7). 이는 공공주도의 발주는 일정수준 지속되는 반면 주택 등 시장수요 부진에 따라 민간공사의 발주가 줄어들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업황체감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3.5→33.9)에서의 하락폭이 컸던 반면(-19.6p), 지방(35.0→43.5)은 전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8.5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60.5→35.7)에서 전월 대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며(-24.8p). 지방(31.7→29.6)은 소폭의 하락을 보였음(-2.1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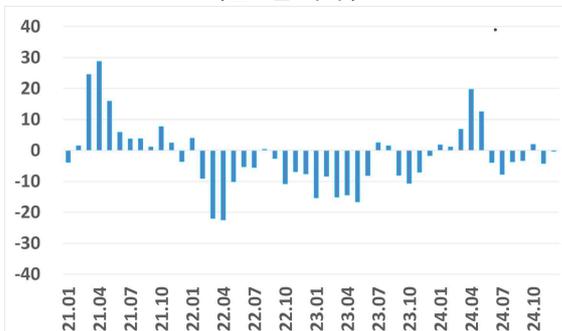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4년 12월 평가	40.4	40.7	33.9	43.5	37.8	54.2
	2025년 1월 전망	36.3	34.9	42.9	33.0	43.2	37.5
하도급 수주	2024년 12월 평가	31.6	36.0	35.7	29.6	32.4	43.8
	2025년 1월 전망	32.2	32.6	42.9	27.0	43.2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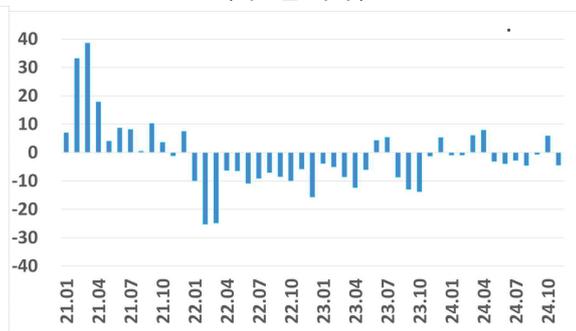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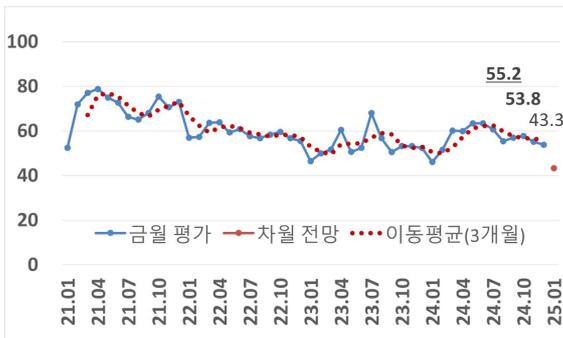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전월 수준, 자금조달지수는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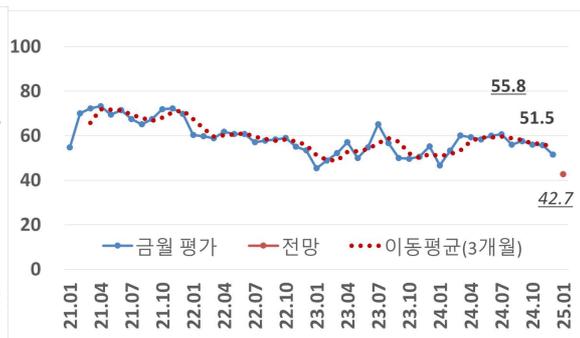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3.8(55.2→53.8)로 전월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1.4p), 차월(43.3)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10.5p). 이번 조사에서는 수주한 공사건수의 감소와 더불어 공사대금의 수령이 지연되면서 운영자금의 회전이 어렵다는 업체들이 적지 않았음.
 - 수도권(62.8→46.4)은 전월보다 크게 악화되었지만(-16.4p), 지방(52.5→57.4)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4.9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1.5(55.8→51.5)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4.3p), 차월(42.7)에도 연이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8.8p).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다는 것과 함께 대출이자에 대한 응답업체들의 부담도 지적됨.
 - 수도권(69.8→46.4)은 전월보다 크게 악화(-23.4p), 지방(50.8→53.9)은 개선됨(+3.1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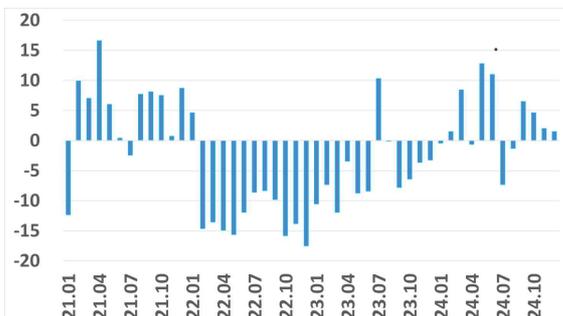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4년 12월 평가	53.8	52.3	46.4	57.4	45.9	68.8
	2025년 1월 전망	43.3	48.3	44.6	42.6	37.8	60.4
자금조달	2024년 12월 평가	51.5	55.2	46.4	53.9	45.9	72.9
	2025년 1월 전망	42.7	47.1	46.4	40.9	43.2	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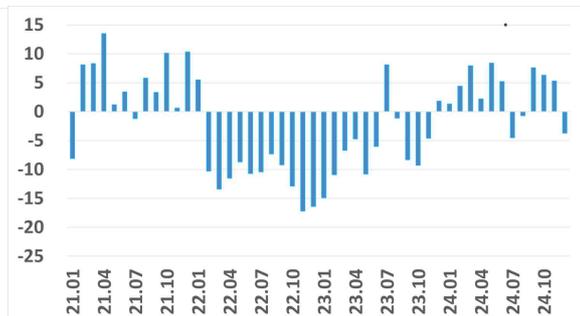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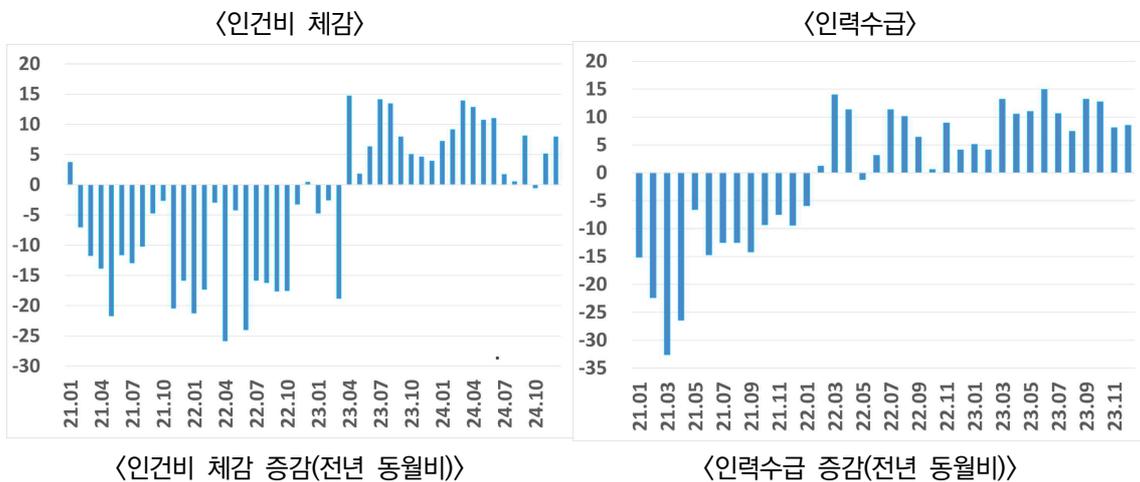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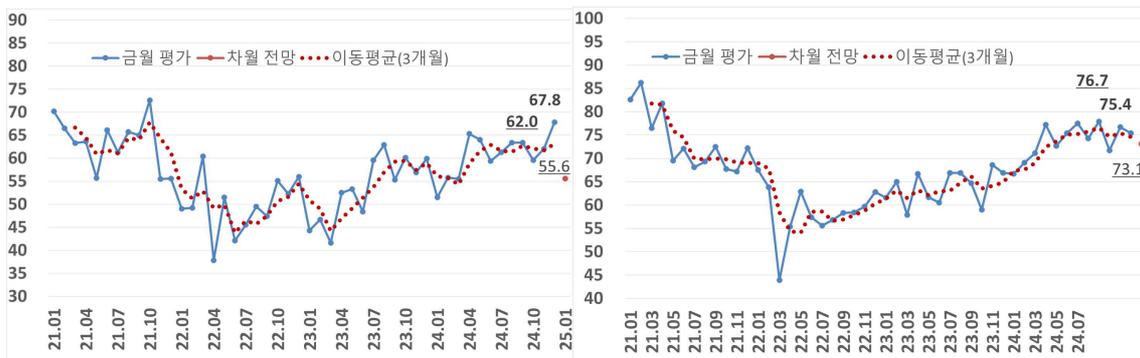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소폭 개선, 기능인력수급은 전월 수준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67.8(62.0→67.8)로 전월에 이어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5.8p). 여전히 전년 동월(59.9)보다는 높은 수준임(+7.9p).
 - 수도권(60.5→69.6)은 개선(+9.1p), 지방(62.5→67.0)도 소폭 개선됨(+4.5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75.4(76.7→75.4)로 전월과 유사했으며(-1.3p), 전년 동월(66.9)보다 크게 높았음(+8.5p). 현장기능인력의 수급문제는 금월에도 꾸준히 지적됨.
 - 수도권(74.4→78.6)은 전월에 연이어 상승(+4.2p), 지방(77.5→73.9)은 하락함(-3.6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4년 12월 평가	67.8	59.9	69.6	67.0	62.2	79.2
	2025년 1월 전망	55.6	58.1	55.4	55.7	43.2	72.9
인력수급	2024년 12월 평가	75.4	66.9	78.6	73.9	73.0	81.3
	2025년 1월 전망	73.1	69.8	73.2	73.0	67.6	83.3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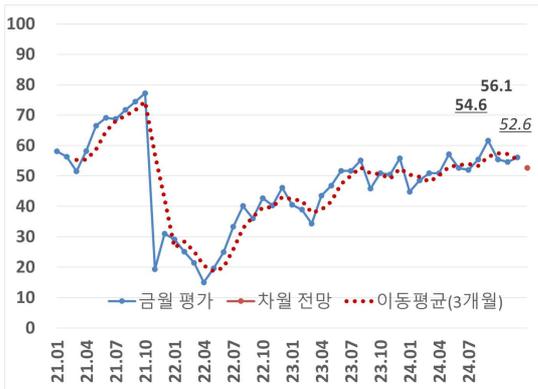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는 전월 수준, 자재수급지수는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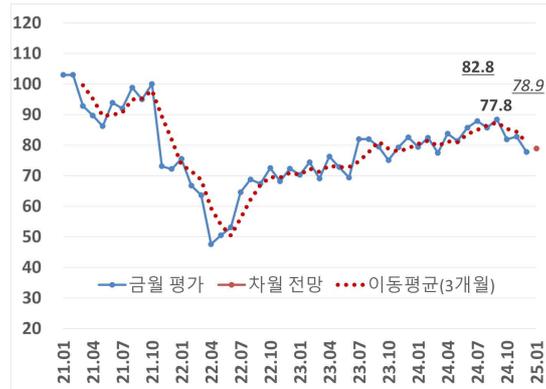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는 56.1(54.6→56.1)로 전월과 유사했지만(+1.5p), 차월(52.6)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3.5p). 자재단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황임.
 - 수도권(51.2→64.3)은 크게 상승(+13.1p), 지방(55.8→52.2)은 소폭 하락함(-3.6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7.8(82.8→77.8)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으며(-5.0p), 차월(78.9)에도 별다른 개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1.1p).
 - 수도권(79.1→69.6)은 크게 하락(-9.5p), 지방(84.2→81.7)은 소폭 하락함(-2.5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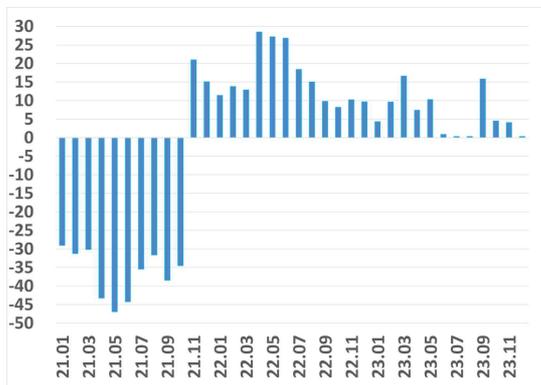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4년 12월 평가	56.1	55.8	64.3	52.2	67.6	68.8
	2025년 1월 전망	52.6	56.4	58.9	49.6	54.1	68.8
자재수급	2024년 12월 평가	77.8	82.8	69.6	81.7	64.9	87.5
	2025년 1월 전망	78.9	80.8	73.2	81.7	70.3	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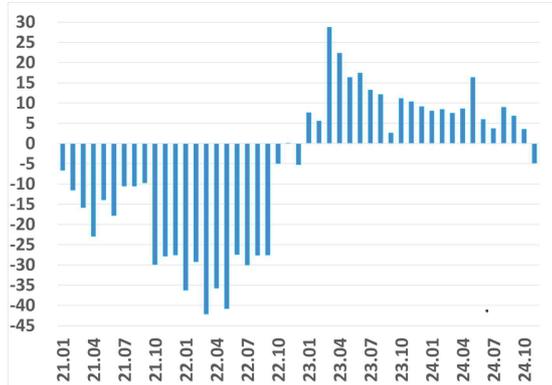
〈자재비 체감〉



〈자재수급〉



〈자재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음(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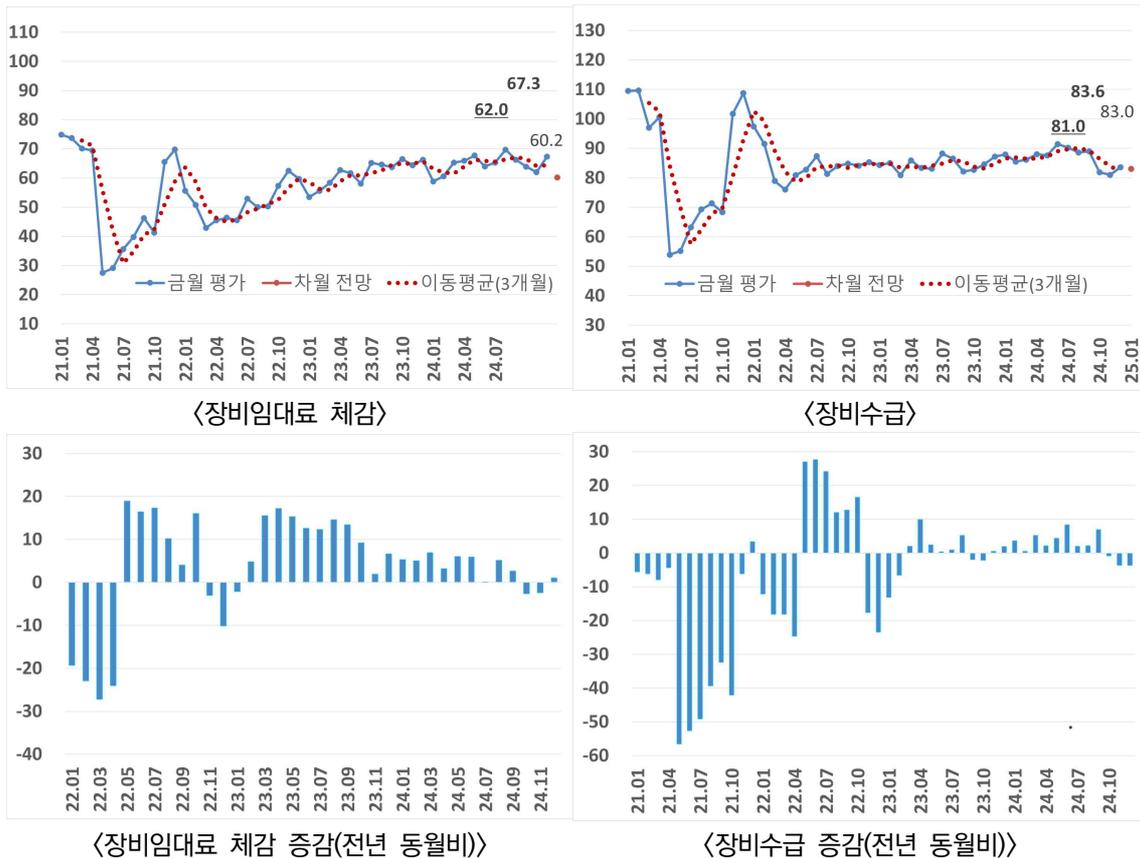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는 소폭 개선, 장비수급지수는 전월과 유사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67.3(62.0→67.3)으로 전월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나(+5.3p), 차월(60.2)에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7.1p). 전월과 달리 금월에는 건설중기 관련 단체의 장비 소요 및 단가 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었음.
 - 수도권(58.1→66.1)은 전월보다 개선(+8.0p), 지방(63.3→67.8)은 소폭 상승함(+4.5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3.6(81.0→83.6)으로 전월 대비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없었으며(+2.6p), 차월(87.2)에도 업황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0.6p).
 - 수도권(76.7→80.4)은 소폭 개선(+3.7p), 지방(82.5→85.2)도 소폭 상승함(+2.7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4년 12월 평가	67.3	66.3	66.1	67.8	62.2	79.2
	2025년 1월 전망	60.2	65.7	64.3	58.3	56.8	68.8
장비수급	2024년 12월 평가	83.6	87.2	80.4	85.2	70.3	97.9
	2025년 1월 전망	83.0	86.0	76.8	86.1	67.6	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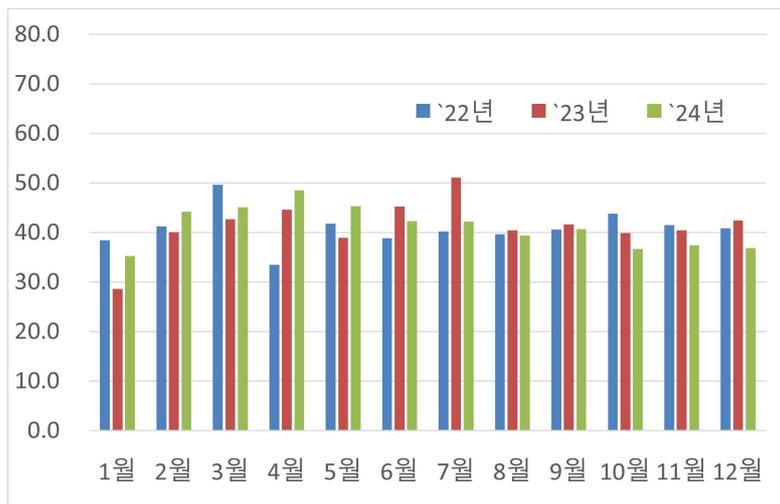


참고: 2024년 1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36.8	42.4	37.5	36.5	32.4	50.0	
	차월 전망	26.3	39.5	35.7	21.7	35.1	33.3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40.4	40.7	33.9	43.5	37.8	54.2
		차월 전망	36.3	34.9	42.9	33.0	43.2	37.5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31.6	36.0	35.7	29.6	32.4	43.8
		차월 전망	32.2	32.6	42.9	27.0	43.2	37.5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53.8	52.3	46.4	57.4	45.9	68.8
		차월 전망	43.3	48.3	44.6	42.6	37.8	60.4
	자금조달	금월 평가	51.5	55.2	46.4	53.9	45.9	72.9
		차월 전망	42.7	47.1	46.4	40.9	43.2	60.4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67.8	59.9	69.6	67.0	62.2	79.2
		차월 전망	55.6	58.1	55.4	55.7	43.2	72.9
	인력수급	금월 평가	75.4	66.9	78.6	73.9	73.0	81.3
		차월 전망	73.1	69.8	73.2	73.0	67.6	83.3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56.1	55.8	64.3	52.2	67.6	68.8
		차월 전망	52.6	56.4	58.9	49.6	54.1	68.8
	자재수급	금월 평가	77.8	82.6	69.6	81.7	64.9	87.5
		차월 전망	78.9	80.8	73.2	81.7	70.3	91.7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67.3	66.3	66.1	67.8	62.2	79.2
		차월 전망	60.2	65.7	64.3	58.3	56.8	68.8
	장비수급	금월 평가	83.6	87.2	80.4	85.2	70.3	97.9
		차월 전망	83.0	86.0	76.8	86.1	67.6	95.8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